

# 제국주의 시대의 평화론

— 均勢, 大同, 齊物을 중심으로\*

차 태근\*\*

## <목 차>

1. 서론
2. 균세의 법과 주체성
3. 제국으로서의 대동세계
4. 반제국주의와 '제물(齊物)'세계
5. 결론

## 1. 서론

극단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이 평화라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야말로 가장 평화가 필요했던 역사적 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연이은 전쟁과 국가-민족의 존망의 위기는 개인의 삶의 기초까지 위협하는 예측불허의 불안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특히 이 시기는 전례 없는 대량학살의 무기 개발로 인해, 전쟁의 의미가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파괴를 넘어 인류의 생존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로 부상되었다. 그 결과 평화론과 평화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적이고 인류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두 차례의 만국평화회의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중국문제를 핵심으로 한 태평양

\* 본 논문은 2019년 인하대학교의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교수(ctgksy@inha.ac.kr)

이 세계질서 변동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질서가 급격히 전환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서구의 열강들, 그리고 새로운 동아시아 패권자로 부상한 일본은 그 재편의 목표물로서 존망의 위기에 처한 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세력 확장을 위한 각축을 전개하였다.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민족주의 및 그에 기반한 제국주의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동하고 규율하는 지배자였다. 제국주의는 그에 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조류로서 간주되었고, 당시 비유럽지역의 지식인들에게 제시된 근대적 사상과 지식으로부터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를 분리해 내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국가나 지역, 혹은 세계질서의 차원 등 다양하게 모색된 한국과 중국의 평화론은 처음부터 적잖은 곤경과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세계질서 혹은 지역질서 개편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지위가 변화한 한국과 중국에게 있어 평화는 자강이라는 분투를 통해 획득해야 할 목표이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자에 의해 좌우되는 희구이자 “시혜”의 대상에 가까웠다. 뿐만 아니라 진보와 문명이라는 명목 하에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수용되어 확산되던, 제국주의가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 동원하던 근대의 여러 담론과 언어의 구속을 벗어나 대안적 사유를 전개한다는 것은 “수구”로 치부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었다.

본 연구는 19세말 20세기 초 새로운 지식과 사상관념이 지배하는 담론장, 국가와 민족의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질서재편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의 주변화와 같은 사유와 언술의 특정 조건 속에서 평화에 관한 상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중국의 평화론은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국가 간의 세력균형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현실주의론, 공법 혹은 세계국가의 보편적 이념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통합주의, 그리고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이상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당시 정치가 및 외교관들 사이에 널리 수용된 균세론과 캉유웨이(康有爲)의 대동세계, 그리고 장타이엔(章太炎)의 제물론적 평등질서에 해당한다.<sup>1)</sup>

1) 이러한 구분은 현대의 국제관계 혹은 국제정치를 접근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상 평화관념 혹은 사상에서 주목할 것은 평화의 주체와 이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이다. 균세론과 대동사상, 제물론적 평등사상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평화의 성격과 수준)와 평화의 주체 및 대상 등에 있어 적잖은 차이가 있어 동일 기준 하에 비교하기 어렵지만, 19세기 말 세기전환기 중국 지식인들의 세계인식과 지향의식의 특징을 잘 대변해 준다. 그 가운데 장타이옌은 비록 바람직한 세계질서나 지역질서에 대한 구상이나 언급을 직접 혹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중국 지식계에서 논해지던 평화론이나 근대지식의 특징 및 성격을 반추하는 중요한 거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사상이 보다도 시대의 현실적 조건을 넘어서는 평화체제의 윤곽을 제시한 인물이다. 따라서 장타이옌의 평화사상은 다른 두 평화관념 혹은 평화사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 비교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 2. 균세의 법과 주체성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세계질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홉스가 말한 바와 같은 무력의 절대적 주체인 국가들의 자연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시대라고 개괄되는 이 시기는 동서양의 접촉이 전면화되면서 근대적인 세계체계 하에 동아시아의 근대적인 질서가 확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명실상부 국제관계라는 새로운 세계체계 혹은 질서가 확립된 이 시기의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무정부상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서양을 포함한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 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법이 확립된 시기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각 민족이 전례없는 격변과 압박 속에서

---

의 구분과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캉유웨이의 대동세계는 현실주의, 자유주의와 이상주의가 혼효되어 있고, 담론의 수행성을 중시하는 장타이옌의 제물세계에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혼효되어 있다.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조지프 나이 지음, 양준희·이종삼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한울, 2009(개정판), 25-35쪽 참고.

각자 도생하는 시기였다면 서구에서는 각 민족이 수 세기이래 보기 드물게 평화를 향유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유럽의 평화질서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제정치 개념은 바로 세력균형이었다. 칼 폴라니에 의하면 19세기 문명의 핵심기초는 바로 국제 금본위제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세력균형체제에 의해 유럽은 1815년 비엔나 회의 이후 백년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sup>2)</sup> 특히 병립하는 열강들이 특정 국가가 지배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하던 동맹 혹은 연대의 방식이 유럽 국제질서의 기본 전략이 되었다. 따라서 18세기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이어 공상적 사회주의와 같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이상적인 평화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수십 년 동안 현실적인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주요 방안은 바로 세력균형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세력균형론은 일찍이 중세와 같이 국제질서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나 주체, 혹은 20세기의 집단 안보체제와 같은 시스템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국제법 사상가와 국제정치 사상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균형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혹은 다의성과 그것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기구나 방법의 결여로 세력균형의 이념과 현실의 차이, 또는 각 국가의 국제적인 지위와 조건의 차이에 따른 이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현실에서 세력균형은 항상 논쟁적이었다.<sup>3)</sup>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다국 사이의 균형이란 매우 취약한 토대에 기초해 있으며, 자국에 불리하게 변화된 조건 혹은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책으로서 새로운 균형의 회복과 보존을 명분으로 종종 전쟁이라는 폭력적 방식이 동원되었다. 즉 세력균형이란 안정

2) 칼 폴라니 지음, 박현수 옮김,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민음사, 1998, 17-35쪽.

3) 17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서구의 국제법에서 세력균형의 이념이 이해되고 논의된 방식에 대해서는 Alfred Vagts and Detlev F. Vagts, "The Balance of Power in International Law: A History of an Idea,"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3, No.4 (Oct, 1979), 555-580쪽 참고.

이나 균형의 수단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균형을 위한 동맹이라는 이합집산과 전쟁의 목적 혹은 구실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sup>4)</sup> 특히 국제법 사상에서 자연법이 퇴조하고 실정법이 지배하던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에서 세력균형론은 바로 보편적인 법의 개념이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의 안보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정책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과의 전면적인 접촉에 의해 기존 지역질서의 안정이 위기에 처하고, 서구 열강의 경쟁적 세력 확장의 대상으로 전락한 동아시아에서 평화는 바로 당면한 국가 혹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즉 평화란 보다 안정된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긴박한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으며, 그 결과 그 구체적인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했다. 특히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서구 열강의 압박이 평화질서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던 만큼, 관건은 자강을 통한 방어능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서구 열강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절제시킬 수 있는 제도나 규범이 필요했다. 1860년대 초 중국의 양무운동과 《만국공법》의 발간은 바로 서구의 열강에 의해 초래된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청 정부가 취한 두 가지 대응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서구의 과학과 군사기술을 도입하여 자강을 통한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국가간 행동을 규율한다고 간주되는 국제법 즉 만국공법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청 정부의 만국공법에 대한 관심은 중국에서 익숙한 대외전략, 즉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일환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외교관과 지식인들은 곧 그것으로부터 다국간의 세력경쟁에서 각 국가가 생존을 도모하거나 지역의 평화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적 개념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균세(均勢)”

4) Little, Richard, *The Balance of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Schroeder, Paul, “International Politics: Peace and War 1815-1914”, in Blanning, T., *The Nineteenth Century: Europe 1789-1914*,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Sobek, David, Chapter 3 “Balance of Power”, in *The Causes of War*, Cambridge, 2009 참고.

라고 번역된 세력균형론이었다. 《만국공법》을 통해 수용되어 19세기 후반 중국과 조선의 대외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균세관념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만국공법》의 저자 휘튼의 관점이 아니라 번역자 마틴의 해석에 의거한 보편적인 법의 개념에 가까웠다.<sup>5)</sup>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항상 터키의 자주와 미분열이 균세의 법과(이른바 균세의 법이란 강국이 그 세력을 균등하게 하여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약한 국가가 이에 의거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로 태평(太平)의 요긴한 술(術)이다)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터키와 함께 맹약을 논의하여 터키인이 유럽의 공법에 복속하게 되었다.<sup>6)</sup>

휘튼의 원문과 마틴의 번역문 사이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어/주체의 치환이다. 휘튼에게 있어 국제법은 공동의 종교와 관습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 문명세계에서 상호 승인하는 규범이며, 규범에 따른 행위의 주체는 곧 유럽과 아메리카의 기독교 문명국가였다. 예를 들어 균세의 주어는 바로 유럽의 이해 당사국이며, 세력균형의 조건에 대한 평가와 이를 위한 행위 역시 유럽 및 미국의 주권 및 이해와의 관련 여부였다. 국가의 자기 보호 주권과 타국가의 주권에 대한 개입(즉 세력균형을 위한 개입의 명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휘튼은 터키의 독립과 통합이 유럽의 세력균형의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비기독교 문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존립을 위해 간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마틴 역시 휘튼의 주장과 같이 유럽 열강이 터키를 도와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오직 터키의 운명이 유럽에 우환을 남겨 균세지법에 방해가 될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면서도, 균세지법의 두 가지 측면을 특별히 덧붙여 부각시켰다.

5) 강동국,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화: Balance of Power의 개념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은주, <19세기 말 한국 외교정책 모델리티로서의 '균세(均勢)'와 인아거일(引俄拒日) 균세전략의 국제정치학적 분석>,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20(2), 2017. 12. 159-192쪽 참고.

6) 亨利·惠頓 著, 丁韋良 譯, 《萬國公法》 卷一, 同治三年, 京都崇實官, 12쪽.

7)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Little, Brown, 1857, 19쪽, 103쪽.

첫째는 균세는 태평을 이루는 긴요한 방법으로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평형질서의 원리라는 점이고 둘째는 주로 강대국의 힘을 견제하여 약소국의 주권을 보장한다는 점이었다. “터키가 자립, 자주하고, 타국에 정복되거나 할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럽 균세지법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옛날 유럽 국가들은 “터키가 강한 것을 두려워하여 멸하려고 하였지만, 지금은 그 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보존”하려고 한다.<sup>8)</sup> 휘튼의 원문의 문맥에서 터키는 유럽의 균세를 이루는 종속변수에 불과하지만, 마틴의 어조에서는 균세의 법이 유럽의 질서 안정을 보장하는 원리이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 스스로 자립과 자주를 유지하기 어려운 약한 국가인 터키가 동정과 보호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만국공법 및 균세의 대상은 물론이고 그 주체 역시 유럽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만국으로 열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번역본 《만국공법》에는 마틴의 해석과 더불어, 실제 현실에서 균세의 법이 “악용”되는 사례들을 통해 균세의 법에 대한 불안의식 혹은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 즉 세력균형은 이웃국가의 과도한 무장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자기방어를 위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 국가의 통치자들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의 위협을 과장하여 타국 특히 약소국을 공격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sup>9)</sup> 뿐만 아니라 휘튼은 세력균형을 위한 개입은 강국이 정복한 지역을 영토로 복속시키거나 지배 권력을 확대하여 통치 지역을 확대하는 등 세력균형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위협에 국한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대해서도 공법에 의해 규정하기보다 매 상황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영국의 입장을 인용하기도 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이 약소국의 안보장치로서 세력균형이 지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틴이 균세를 보편적인 공법의 규범과 유사한 것으로 강조한 것은 그가 국제법에 대해 자연법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sup>11)</sup>과 더불어 중국의 독자

8) 《萬國公法》 卷二, 同治三年, 京都崇實官, 10쪽.

9) Henry Wheaton, 87쪽, 93쪽: 《萬國公法》 卷二, 3쪽.

10) Henry Wheaton, 88쪽: 《萬國公法》 卷二, 5쪽.

들이 만국공법의 가치와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수용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전체 번역서 중 삽입된 몇 구절에 불과한 그의 국제법 관련 의도적인 첨삭과 해석은 중국 독자가 만국공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상상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중국인이 보았을 때, 만국공법의 가치와 실천적 규범의 기능을 담보하는 것은 “태평의 요술”인 바로 “국제법의 법”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개 평화의 구상은 곧 당면한 세계질서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출발하는데, 19세기 후반 동서의 전면적 접촉에 의한 상황 변화와 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시각을 제공한 것이 바로 만국공법이었다.

우선 당시 시대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간단히 요약하면, 대일통이 붕괴되어 여러 강국과 약소국이 병존하며 상시 각국이 각축을 벌이는 “전국시대(戰國時代)”였다. 허루장(何如璋)은 서구의 대세를 러시아는 진(秦),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각각 연(燕)과 조(趙),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한(韓)과 제(齊), 터키는 송(宋)과 같은 제후국으로 회맹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국시대에 비유하였으며,<sup>13)</sup> 주미공사 추이귀인(崔國因)은 “약자는 합종을 통해 강자에 저항

11) 마틴이 국제법을 만국공법의 규범처럼 소개한 것은 만국공법이 약소국이 독립과 통합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틴의 국제법에 대한 관점이 자연법의 입장에 가까웠던 것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법적 시각에서는 세력균형을 국제법의 규범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마틴이 국제법에서 세력균형에 부여한 중요한 의미와 지위는 그가 중국의 춘추전국시기 제후국의 관계를 국제법의 시각에서 분석한 <중국고세공법(中國古世公法)>에서도 보여지는데, 여기서 그는 춘추전국시기 국제법 규범의 혼적으로서 통상교류, 회맹(會盟) 및 입약(立約), 국외(局外)권리 등과 더불어 강자를 견제하여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법의 법이 행해지고 있음을 들고 있다. 丁韪良, <中國古世公法略論>(1884), 王健編, 《西法東漸:外國人和中國法的近代變革》(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1), 33-39쪽.

12) 특히 만국공법을 번역하던 시기 중국과 서구의 외교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베이징에 외국인 공사를 상주케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만국공법》에서 각국의 수도에 외국인 공사의 상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각국의 세력균형을 해치는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즉 “각국이 힘에 의거하여 약자를 침범하여 국제법의 법을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을 들고 있다. 즉 중국의 내외외환의 상황에서 만국공법이 중국의 자립과 통합에 유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국제법의 법이라면, 이러한 국제법의 법이 잘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기구가 바로 각국 수도에 상주하는 외교관을 두는 것이라는 것이다. Henry Wheaton, 273쪽; 《萬國公法》卷三, 1쪽.

13) 羅森等, 《早期日本遊記五種》(長沙:湖南人民出版社, 1983), 59쪽. 왕타오 역시 이와 유

하고, 강자는 연횡으로 약자를 병탄”하는 전국시기의 연횡합종의 시대로 묘사하였다.<sup>14)</sup> 또 《신보(申報)》의 한 필자도 “금일 태서의 국면은 대국과 소국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강국과 약소국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 주(周) 말기 전국의 형세와 극히 비슷하다”고 하였다.<sup>15)</sup>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평화 혹은 안정된 질서란 보장하기 어려우며, 단지 끊임없는 연횡합종을 통한 상호 견제, 즉 균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지될 뿐이었다. 즉 “강자와 약자가 서로 견제하고 맹약으로 서로 연맹하여 서로 병합을 하지 못하게”<sup>16)</sup>하거나 “각국이 부강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안으로는 속임수와 무력을 행하면서 겉으로는 공범에 기탁하여 함께 유지”<sup>17)</sup>하는 균세의 법이 일시적이거나 평화를 가능케 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만국공법의 역사적인 의미와 발명의 원인에 대해, 중국인들은 상기와 같은 세계의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귀쑹타오(郭嵩燾)는 “최근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독일 등 대국이 서로 패권의 각축을 벌이다가 만국공법을 창제하여 신의를 앞세우고 국가의 교제의 도리를 중시하게 되었으며”, “만국공법의 조항이 엄격하여 여러 대국이 서로 유지하게 되었다”<sup>18)</sup>고 보았고, 왕타오는 서구 각국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갈라져 대립하며 군사력으로 서로 패권을 겨루다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총과 대포로 싸웠는데, 최근에 만국공법을 제정하여 서로 준수함으로써 영원히 분쟁을 없애고 화목하여 함께 승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sup>19)</sup> 이와 같이 만국공법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간주되었다.

셋째, 만국공법이 평화를 보장하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공범 가

사하게 유럽의 각국 형세를 전국시대의 각국 상황에 비유하였다. 王韜, <送黎侍郎回越南前序>, 《菽園文錄外編》 卷八, 清光緒9年(1883), 27쪽.

14) 崔國因, 《出使美日秘日記》, 合肥: 黃山書社, 1988, 332쪽.

15) <論瓜分中國非泰西各國之本心>, 《申報》, 1898年9月16日.

16) 薛福成, 《出使英法義比四國日記》, 長沙: 嶽麓書社, 1985, 302쪽.

17) 黎庶昌, 《西洋雜誌》,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1, 180쪽.

18) 郭嵩燾, 《郭嵩燾日記》 第三卷,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2, 136쪽; 王彥威·王亮輯, 《清季外交史料》 卷九,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7, 22쪽.

19) 王韜, <泰西立約不足恃>, 《菽園文錄外編》 卷五, 清光緒9年(1883), 8쪽.

운데 균세의 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공법은 피차 스스로 그 나라를 만국의 하나로 인식하여 가히 서로 맺어 서로 통합하거나 속국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 서로 통합하거나 속국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연법(性法)과 실정법(例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릇 각국의 권리는 군주가 되었던 민주가 되었던, 군민공주가 되었던 관계없이 모두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바로서 타인이 침탈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균세의 법과 상호보호의 법이 있는 것이다.<sup>20)</sup>

정관잉에 의하면 공법 앞에서 만국은 평등하다. 모든 국가는 그 정체(政體)가 무엇이든, 또 그 국가의 크기나 국력의 강약에 관계없이 평등한 불가침의 권리를 지니며, 이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규범이 바로 균세의 법과 상호보호의 법이다. 이러한 균세의 법은 각 국가가 서로 병탄을 추구하거나 궤변으로 속여 혼란에 빠지자 그 대안으로서 출현한 것으로,<sup>21)</sup> 한 국가가 지나치게 강성하여 공법을 지키지 않고 이웃국가에 화를 끼치게 되면 만국공법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여 강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보호하여 균세의 법을 보장하게 된다.<sup>22)</sup>

그러나 균세의 법에 기반한 만국공법이 보장하는 평화에 대해 중국인들 가운데 일부는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제분쟁을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위와 그 결과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만국공법과 균세의 법은 각 국가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법을 포함하여 국가 간의 규약은 “자국이 강하고 타국이 약할 경우에는 영원히 지키려 하지 않고, 자국이 약하고 타국이 강하면 결국 지킬 수 없게 되며, 피차 모두 강할 경우에 그 규약이 자기에게 불편하면 또 지키려 하지 않는” 등<sup>23)</sup> 국가 간의 관계는 “공법을 구실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

20) 鄭觀應, 《盛世危言》, 中州古籍出版社, 1998, 146쪽.

21) 馬建忠, <巴黎復友人書>, 《適可齋記言》 卷二, 11쪽.

22) 陳虬, <擬援公法許高麗爲局外之國議>, 《治平通議》 卷四, 光緒19年甌雅堂刻, 15쪽.

23) 王韜, <泰西立約不足恃>, 《菽園文錄外編》 卷五, 清光緒9年(1883), 8-9쪽.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sup>24)</sup> 이러한 자기 보호술이자 기만술로서의 균세의 이용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은 바로 19세기 말 세기 전환기에 열강에 의한 중국의 분할론이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균세론은 평화론이 아니라 분할론의 대표적인 명사로 의미가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19세기 말 중국인들은 국가 및 지역의 평화질서를 이름에 있어서 만국공법과 균세의 법에 많은 기대감을 부여하면서도 그것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만국공법과 세력균형에 대한 중국의 인식상의 혼란은 당시 규범으로서의 국제법과 현실적인 국제정치 사이의 괴리를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인식상의 혼란을 가중시킨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마틴이 휘튼의 원작 중 지우고자 했던 만국공법 및 세력균형에 관한 당시 유럽인의 인식과의 차이였다.

휘튼의 국제법은 만국공법이라기보다는 유럽공법에 가까웠다. 공법이 자연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문화와 관습, 역사, 종교에 기반한 실정법의 성격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이상, 그것이 합의를 통해 성립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휘튼은 단일한 보편적인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법(public law)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항상 그리고 여전히 유럽의 문명화된 기독교 사람들 혹은 유럽에 기원을 둔 사람에 국한 된다”<sup>25)</sup>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곧 이어 그는 또 터키, 이집트, 페르시아와 야만 국가, 그리고 중국 등 타문명권에서도 그들 특유의 국제 관습 혹은 관례를 버리고 점차 기독교 세계의 관습을 채택하는 변화를 지적함으로써,<sup>26)</sup> 이후 세계에서 가능한 보편적인 공법은 유럽적인 공법이 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즉 비유럽, 비기독교 세계로 확장되는 유럽의 공법은 유럽의 기준에서 가장 문명화된 사회의 공법이며, 이 공법의 적용은 곧 유럽적인 문명의 수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명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휘튼이 강조한 세력균형은 유럽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유럽국가들 사이의 경쟁이라도

24) 馬建忠, <巴黎復友人書>, 《適可齋記言》 卷二, 12쪽.

25) Henry Wheaton, 16쪽.

26) Henry Wheaton, 20-21쪽.

식민지나 타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은 해당되지 않았다. 하물며 유럽 내의 세력 균형과 무관한 타 대륙이나 지역에서 강국에 의한 약소국에 대한 침해는 더욱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유럽중심적인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적인 세력균형론이 마틴의 번역에 의해서 보편적인 규범이자 국제 평화의 원리로 의미가 변화된 것이었다.

결국 만국공법이든 균세의 법이든 관건은 국제규범이나 국제정치학적 정책에 의해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범과 국제정치학적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주체성의 문제였다. 그 주체성은 곧 자기보존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주위의 세력관계를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조율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정관잉이 부강의 정도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강국은 공법으로 타국을 구속하고 약국은 그러한 굴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비판하며, 공법은 실제 힘이 없는 허문(虛文)으로서 오직 발분하여 자강을 이룬 국가만이 공법의 이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한 것은<sup>27)</sup> 바로 그 주체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자강만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청일전쟁에서 수치를 당한 이후, 서구는 우리를 야만으로 취급하고 우둔하고 완고하며 비루하다고 멸시한다. 이전에는 우리를 반개화(半敎)의 국가로 여겼으나 지금은 우리를 아프리카 흑인노예와 동일시한다. 이전에는 우리가 오만하고 잘난 체한다고 증오하더니 지금은 우리를 귀머거리, 소경에 멍청이라고 모욕한다. 공법과 균세, 보호 등의 법을 따르는 것은 단지 문명국에만 해당하지 야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교(政敎)가 없는 야만을 없애는 것은 물과 불속에서 백성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어찌하여 밀약을 맺고, 영국과 일본이 무슨 까닭에 깊은 관계(동맹)를 맺는가? 터키와 회랍의 분쟁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왜 병력을 아끼며 동원하지 않았는가? 전함의 수에 관해 여러 국가들이 왜 서로 경쟁적으로 병력을 강화하여 상대하는가? 대중을 향해 “유럽의 태평을 보존한다”고 떠벌이는데, 그 해로움이 아시아에 미치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sup>28)</sup>

27) 鄭觀應, 《盛世危言》, 147-148쪽.

28) 康有爲, <上清帝第五書>(1898. 1), 湯志鈞 編, 《康有爲政論集》(上), 中華書局, 1981.

무술변법시기 캉유웨이의 상주문에는 바로 단순히 자강만이 아니라 공법과 균세의 법의 주체가 되기 위해 서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다. 제국주의의 절정기에 임박한 국가분할의 위기 경험을 통해, 중국인들은 마틴의 해석이 아닌 휘튼의 국제법의 원의를 간파했던 것이다. 균세의 법은 유럽의 태평을 위한 법이지 비유럽지역, 특히 약소국가들에게는 분할과 지배의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청일전쟁 이후 대두되었던 중국분할론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바로 균세, 즉 세력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휘튼은 식민지나 비유럽대륙에서의 경쟁이 유럽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19세기 후반 이후 제국주의가 팽창함에 따라 전세계가 유럽 국가들의 경쟁무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먼 지역의 식민지 경쟁은 곧 '유럽의 평화'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변화하였다. 특히 19세기 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이 열강이 상호 경쟁과 각축을 벌이는 중심무대가 된 이후, 중국의 문제는 서구 열강들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미국의 중국 문호개방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환이었지만, 중국이 세계경제와 세력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특정국가가 중국에서 패권을 장악할 경우 곧 서구 열강의 세력균형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학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및 중국 지위의 주변화에 따라 균세에 의거했던(적극적 균세론) 중국의 현실주의적인 평화관념은 급속하게 퇴조하였다.<sup>29)</sup> 그리고 대신 열강 중심의 균세의 틈새를 이용(소극적 균세론)하여 개혁과 자강으로 주체 능력을 강화하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

202쪽.

29) 청일전쟁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동아시아 질서 유지를 위한 균세법의 기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부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청일전쟁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동아시아 질서 유지를 위해 중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 이후 서구 열강에 의해 그 주체적 역할이 부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제국으로서의 대동세계

적극적인 평화론을 구상함에 있어, 자신의 참여가 배제된 균세라는 외적인 의지와 조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소극적 균세)은 사고와 상상의 적지 않은 제약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19세기 말 세기 전환기에 세계의 평화문제를 가장 깊이 숙고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Kang Yu-wei였다. Kang Yu-wei의 평화관념을 잘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의 《대동서》를 중심으로 한 대동사상이다. 지금까지 그의 대동사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그의 정치사상, 유토피아 사상과 관련된 사상적 원류 및 형성과정, 그리고 대동세계의 사회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는 유가의 삼세설과 전통적인 대동이념을 서구의 민주주의, 진화론, 사회주의 사상과 여성권리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의 대일통을 구상하였으며, 특히 가족의 해체와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과감한 전망은 당시 다른 유토피아 구상과 비교하여 특별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sup>30)</sup> 그러나 평화론의 측면에서 보면 평화의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법, 사상적 근거 등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대동 세계는 당시 여러 유토피아 사상이나 관념이 그러하듯이, 단순히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중인 세계질서에 대한 관찰에 기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무술변법 시기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던 현실주의적 변법가로서, 그는 앞서 언급한 당시 중국의 외교관, 정치가 및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만국공법이 중국의 운명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급변하는 세계질서가 중국 및 전체 인류에 대해 지니는 의미를 관찰하기 시작한 1880년대부터 그가 공리와 공법에 의거한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체도를 사유하기 시작한 것도

30) 최근 Kang Yu-wei의 대동사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竹内弘行의 《康有爲と近代大同思想の研究》(汲古書院, 2008) 참고.

《만국공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sup>31)</sup> 즉 그가 구상하는 대동 세계는 바로 공리를 기초로 확립된 공법에 따라 세계정부가 관리하는 통일된 세계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간 전쟁이 통제되지 않는 이유인 최고의 절대적 주권주체인 국가와 공리 및 공법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문제였다. 그가 《대동서》에서 인류 평화를 위해 세계정부(公政府)를 제도적 장치로서 내세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을 상호 참조하고 보완하는 방식이었다. 그럼 어떻게 세계정부를 이룰 수 있을까?

국가란 가장 고급의 인민단체이다. 천제(天帝)이외에 그 위에 법률로 제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각자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지만 공법으로도 억제할 수 없고 말뿐인 의리(義理)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략하여 병탄하고 약육강식하는 것은 형세의 자연스러운 것이지 공리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어진 사람이 있어 군대를 없애어 인민을 안락하게 하고, 국가를 없애 천하를 공(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결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다.……하지만 공리에 입각해 말하고 인심에 따라 관찰하자면 대세의 흐름은 대동에 이르게 된 후에 그치게 될 것이다.<sup>32)</sup>

강유웨이에게 있어 대동세계, 세계정부는 인류 역사발전의 궁극적 목적에 가깝다. 진화론과 목적론적 역사관이 결합된 역사와 세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비관적 낙관주의에 가깝다. 그에 의하면 세계 혹은 국가의 진화란 분화된 상태에서 통합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대개 분열과 병합의 형세는 자연스런 도태의 현상으로, 강한 자가 병합해 삼키고 약한 자가가 멸망하는 것 또한 단지 대동의 선구일 뿐”<sup>33)</sup>이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예시로서 그는 고대부터 많은 사례를 들고 있지만, 특히 19세기 이후 유럽에 의한 아프리카

31) 그는 1888-1890년대 초에 <實理公法全書>, <公法會通> 등을 통해 공리에 의거한 인류의 규범과 보편적인 국제공법에 의거한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康有爲 撰, 《康有爲全集》 第一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146-161쪽 참고.

32) 康有爲, <大同書>, 《康有爲全集》 第七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128-129쪽.

33) 위의 책, 129쪽.

분할과 버마, 베트남, 조선, 류큐 등 아시아 국가의 유럽 및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 그리고 독일과 미국의 연방국가(작은 지방 국가를 통합)의 수립을 대표적인 최근 추세로서 들고 있다. 특히 독일과 미국의 연방은 작은 나라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멸망시키는 기묘한 방식(妙術)이라 평하고, 20세기 초 미국과 독일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해서도 장차 미국이 아메리카를 석권하고 독일이 유럽을 석권하는 것 역시 점차 대동에 이르는 궤도라고 평하고 있다.<sup>34)</sup> 결국 그에 의하면 19세기 후반 본격화된 제국주의의 팽창과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제국주의 전쟁'을 거쳐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되는 것이야말로 대동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그의 세계정부는 군대를 없애는 회의에서 시작하여 연맹국의 수립, 그리고 이어 공의회의 결성으로 완성되고, 연합방식을 보면 각국의 평등한 연맹단계에서 각 연방이 자치를 하다가 대정부로 통일되는 단계, 그리고 국호를 없애고 공정부하에 각각 자유 주(州)와 군(郡)으로 통일되는 단계를 거쳐 수립된다. 여기서 연맹이란 각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는 각종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비엔나 회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삼국동맹 등 유럽의 세력균형의 일환으로 맺어진 각종 동맹관계나 만국평화회담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관계는 구속력이 약하고, 각국이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각국 간의 전쟁을 없애려면 평등하게 연맹하여 공의회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5)</sup> 캉유웨이(康有爲)가 공의정부와 공의회를 위해 참조한 것은 바로 독일연방이었다. 각국의 대표가 공의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공의정부를 설치하되 연방 내 각 지방정부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모델이 그것이다. 다만 공의정부는 연합 군대(公兵)와 공동의 법률(公律)으로써 각국에 압력을 행사할

34) 위의 책, 129쪽 각주 1)과 2) 참고. 위의 책 각주의 내용은 <대동서>의 여러 판본 가운데 1913년 《불인(不忍)》 잡지와 1935년 중화서국에서 출판된 판본에 실린 내용으로, 1991년 번역 출판한 《대동서》(康有爲 지음, 李聖愛 옮김, 1991)는 바로 중화서국의 판본과 내용이 같다. 康有爲 지음, 李聖愛 옮김, 《大同書》, 민음사, 198쪽 참고.

35) 康有爲, <大同書>, 《康有爲全集》 第七集, 129쪽.

수 있다. 이후 조건이 성숙해지면 국가명과 국경을 없애고 대신 공정부의 통합하에 자주적인 주와 군을 설치하는데 마치 미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형태로서 이것이 곧 대동의 세계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역사발전의 자연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많은 저항과 난관, 그리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제국주의적인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에 맡긴다고 해도 그 과정의 비극적인 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구상과 같이 공정부와 공의회라는 세계정부의 수립으로 귀결될지도 보장할 수 없다. 캉유웨이 역시 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마다 풍속과 이해가 다르다는 점, 병립에 대한 선호와 연합형태의 정부에 대한 반감의 존재, 공의회를 대표하는 각국의 의원 수를 정하는 문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국가의 논의를 거쳐 공동의 법률을 제정하는 난제, 그리고 연합 이후에도 각종 원인에 의한 재분열의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는 세계정부로의 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우선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국평화회의에서 출발하여 독일식 연방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식 연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6)</sup> 그리고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세계정부를 추동하는 동력은 민주공화국의 보편화와 세력균형의 원리라고 보았다.

향후 백 년 사이에 여러 약소국들이 다 없어질 것이고, 여러 군주전제체제도 반드시 없어지며, 장차 입헌공화국이 다 행해질 것이고, 국민들의 정당과 평등한 권리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문명국의 백성은 더욱 지혜롭고, 열등한 인종은 날로 점점 쇠미해질 것이다. 이로부터 대세의 흐름과 인심의 향방은 반드시 전지구의 대동, 천하태평으로 나아갈 것이다.<sup>37)</sup>

민주평화론에 가까운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지금까지 국가는 군주의 사유물이었고, 군주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고 희생시키는

36) 위의 책, 131-132쪽.

37) 위의 책, 132쪽.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구성과 정책결정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의지가 중요한 민주공화제에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간 충돌이나 전쟁을 피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캉유웨이의 세계정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전제군주제가 폐지되고 민주공화제가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주공화제는 단순히 정체, 즉 형식적인 제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제의 국민들이 평화를 선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그들이 문명화되어 지혜롭기 때문이다. 앞서 무술변법시기 상주문에서 캉유웨이가 서구가 중국을 반개화의 국가 심지어는 아프리카 흑인노예와 동일시한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당시 문명론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변화에 둔감하여 자기변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중국의 자기비판에 더 가까웠다. 즉 그는 서구의 문명론, 특히 인종론적 문명론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기본적인 관점과 평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서구를 모델로 한 세계적 차원의 문명화와 민주화는 역사발전의 필연적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정부를 추동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힘은 세력균형이었다. 캉유웨이가 국가들의 연방의 시작은 크기와 힘이 비슷하고 이해관계가 유사한 2-3개 국가의 소연합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들 국가들이 연방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대륙, 같은 종교, 같은 종족끼리 연방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했지만, 이는 연방수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통된 조건과 기반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점차 몇 개의, 결국에는 두 세 개의 연방으로 통합되어가다가 마침내 하나의 세계정부로 통일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자기보존을 위해 공동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대연합이라는 세력균형이었다. 그가 예상한 대연합에 따르면 유럽은 대략 3개의 연방, 즉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프랑스

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남유럽의 연방으로 통합될 것이고, 아메리카는 미국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터키, 인도 등 이슬람국가는 영국의 세력이 약해져 인도가 독립할 경우 인도를 중심으로 한 연방을 이룰 것이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중국과 일본만이 남게 되고 여기에 동남아시아가 함께 통합을 이루는데, 일본의 천황의 권위가 약해져 공화제로 변화할 경우 결국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연방이 형성될 것으로 보았다. 그 후 또 대연방들 사이의 세력균형을 위해 두세 개의 더 큰 연방으로 귀결되면, 결국에는 대대적인 전쟁을 피하기 위해 타협을 통해 통일된 세계정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sup>38)</sup> 물론 이러한 전망은 20세기 초 중국이 분할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강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동서》의 내용을 보면 대동세계의 사회적 특징과 그러한 세계에 이르는 과정이 이념과 방식에 있어서 매우 모순적이다. 세계정부 하의 대동세계의 사회적 특징을 보면 국가의 경계 철폐는 물론이고 계급의 차별, 인종차별, 남녀차별이 없이 모두 평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산업 간의 경계도 없애는 등, 인간의 자연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공리(公理/公利)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대동세계에 이르는 과정은 수많은 약소민족의 식민지화와 희생이 수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극에 대한 비판과 연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리의 세계가 아니라 오직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야생적인 경쟁무대이고, 특정 문명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다수의 인류가 도태되고 강제 소멸되는 세계이다. 그러한 잔혹한 비극을 초래하면서 동시에 인류를 통합해 가는 것은 단지 세력균형이라는 국제정치학적 실천뿐이다.<sup>39)</sup>

38) 위의 책, 131-132쪽. 이러한 대륙별 대연방 국가의 구상은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론에서 제기된 관점이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대표적인 제국주의론자인 우키타 카즈타미는 세계는 작은 공동체에서 더 큰 공동체로의 융합과 연합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는 적합한 방법은 지리, 인종, 종교의 유사성 및 근접성에 근거하여 대연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서구는 이미 구성된 영연방과 게르만족, 튜튼족, 슬라브족이 각기 연방을 구성하고, 남북아메리카는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는 일본을 중심으로 연방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浮田和民, <帝國主義理想>, 《國民教育論》, 民友社, 1903, 250-252쪽.

강유웨이가 적자생존과 균세론을 통해 태평세로의 나아간다는 진화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정세 혹은 국제체제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02년 전후 《대동서》의 기본틀이 완성된 이후 국제관계는 강유웨이의 예상과 같이 더 규모있는 세계의 통합을 위한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비록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장악할 거라고 본 그의 예상과는 달리 연합국이 승리했지만), 뒤이어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국제연맹이 출현하는 등, 역사적 비극의 내용을 괄호로 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의 예상의 적중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러나 강유웨이가 세력균형을 근대시기 세계변화의 중요한 추동력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 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즉 중국은 적어도 동아시아 연방의 중심이 되어 최종적인 세계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대동서》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정부 존립의 기반이자 규범인 공법은 각국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원리를 채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대동세계에서의 공법은 유럽중심적인 만국공법, 즉 국가의 대등한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국간의 공법(international law)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어 하나의 동일한 규범 즉 세계 시민의 법의 지배를 받는 만민법(law of peoples)이었다. 이러한 만민법의 전통은 유럽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체계에 더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강유웨이의 대동세계가 함축하고 있는 평화는 그 방법과 과정을 고려할 때 그리 유토피아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대동과 통합은 공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약소자 고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동화와 획일적

39) 그가 대동을 위한 조건으로 민주공화제를 제기하여 마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인들의 지향에 의해 대동에 이르는 과정을 암시한 듯하지만, 당시 미국과 프랑스 등 공화제 국가들의 식민지 경영과 제국주의적 팽창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기 기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보다 그가 상정한 현실적 방법이란 문명진보라는 목적 하에 약소민족의 ‘불가피한 희생’을 수반하는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병합과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이라는 국제정치학적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 통일이듯이, 약소자들을 자기가 소멸해 가는지도 모른 채 동화시켜 복속시키는 “묘술”이었다. 그에게 있어 만국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공존하는 것은 오히려 대동 세계만큼이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세계정부는 칸트식의 세계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화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다.

#### 4. 반제국주의와 “제물(齊物)”세계

1908년 일본정부가 청정부의 압력 하에 일본에서 발행되던 동맹회의 기관지 《민보(民報)》의 발간 취지와 내용(<革命之心理>)이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발간을 금지하자, 그 잡지의 편집자이자 발행인인 장병린(章炳麟)은 《민보》의 발간 취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일본정부를 조롱하듯 비판하였다. 1) 세계입헌국을 섬멸, 2) 세계 가짜평화의 타파 3) 중화제국으로 동아시아를 통일, 4) 전제정부로 오랑개(蠻夷)를 축출, 5) 야만적(獸性)인 민족과 연합하지 않음, 6) 매음국의 찬성을 요청하지 않음.<sup>40)</sup> 이상 여섯 가지는 《민보》가 처음 내세웠던 “6대주의”를 반어적으로 뒤집은 것이었다.<sup>41)</sup> 이 가운데 세계 가짜평화의 타파와 중화제국으로 동아시아 통일은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한다”는 네 번째 주의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혁명단체인 동맹회가 그 기관지 발행의 목적으로서 평화를 내세운 것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쑨원 및 장타이엔을 중심으로 한 동맹회의 세계평화에 대한 관점은 현대 정치 및 민족 혁명과 평화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40) 章炳麟, <爲民報封禁事移讓日本內務大臣平田東助書>, 湯志鈞 編, 《章太炎政論選集》 上冊, 中華書局, 1977, 486쪽.

41) 《민보》의 “6대주의”는 다음과 같다. 1. 현 악렬한 정부를 타도한다, 2) 공화정체를 수립한다, 3) 토지를 국유화한다, 4)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한다, 5) 중일 양국 국민의 연합을 주장한다, 6) 중국 혁명 사업에 대한 세계열강의 찬성을 요구한다. 漢民, <民報之六大主義>, 《民報》 第三號, 1906, 1-22쪽.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후한민(胡漢民)이 “6대주의” 가운데 하나로 설명한 “세계의 진정한 평화”는 중국의 반만주족 민족-공화혁명과 세계 평화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혁명은 1차적으로는 중국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또 간접적으로는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후자의 이유로서 그는 중국의 혁명이 곧 중국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강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우리가 악렬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은 직접 중국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왜 그러한가? 지금 각국은 호시탐탐 세계무대에서 경쟁과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서로 뒤처지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바라보며 감히 앞서려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균세 문제 때문이다. 균세문제는 약소국에 달려 있지 않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과 같은 강국에 달려 있다. 이는 영국, 일본과 같은 나라가 모두 의지하는 중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중국이 그 위치와 자격이 결코 6강의 뒤를 이을 만큼 강하지 못하고 쇠약하고 부진하여 단지 타인의 선내 나는 제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동아시아(遠東)의 문제이다.”<sup>42)</sup>

후한민에 의하면 중국이 쇠약하여 강국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열강들도 중국을 둘러싸고 적절한 세력균형의 방법을 찾지 못해 중국의 문제가 곧 동아시아의 지역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극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은 열강들 사이의 복잡한 균형의 방법을 찾는 것보다 중국이 독립을 유지하면서 강대국의 면모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중국이 쇠약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찍이 량치차오가 중국인의 국민성과 국가의식의 결여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한 적이 있지만,<sup>43)</sup> 후한민은 그와는 달리 소수의 이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통치구조, 즉 소수민족인 만주족이 다수 한족의 광복의지를 막기 위해 집안의 도적 대하듯 지배정책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청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42) 漢民, <民報之六大主義>, 위의 책, 14쪽.

43) 梁啓超, <中國積弱溯源論>, 《清議報》 第77-84冊, 1901年4月29日-7月6日.

대립과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만주족 정부를 지배적인 지위에서 축출하면 중국이 강해지고, 중국이 강해지면 동아시아 문제가 해결되며, 동아시아 문제가 해결되면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sup>44)</sup> 나아가 중국의 혁명을 위한 국제적인 조건으로, 중일 국민사이의 연합, 그리고 중국 혁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평화는 결국 중국의 부강을 통해 중국이 주체로 참여하는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후한민의 이러한 관점은 실은 1904년 쑨원이 중국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중국문제의 진정한 해법》<sup>45)</sup>을 요약한 한 것으로, 당시 동맹회 회원 및 《민보》의 편집자들 다수가 공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쑨원의 위소책자(전체 12쪽 정도)는 중국혁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쓴 것이며, 서구 문명의 시각에서 만주족 정부를 비판하고 동시에 서구의 황화론 등 중국 배척 여론을 겨냥하여 중국은 본래 평화를 애호하고 법률을 잘 준수하는 민족으로 외세를 배척하거나 폐쇄주의적인 민족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sup>46)</sup> 다만 평화론의 시각에서 볼 때 거론될 만한 내용, 즉 당시 세계의 혼란과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한 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러일전쟁에서의 패전으로 화를 자초한 러시아의 예를 들어 중국분할의 불가를 주장하거나 중국 보존론에 대해서도 곧 붕괴될 운명인 만주족 청 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전혀 무익함을 지적하고, 오직 한족의 광복과 공화제를 추구하는 혁명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을 뿐

44) 漢民, <民報之六大主義>, 위의 책, 15-16쪽.

45) 후한민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직접 언급한 바와 같이 쑨원(孫文)의 <중국문제의 진정한 해법(支那問題眞解)>(1904)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1904년 쑨원이 미국에서 The True Solution of the Chinese Question의 제목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실제로는 왕충후이(王龍惠)와 함께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문 소책자는 곧 일본의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가 《平民新聞》(1904年 第59號)에 일본어로 번역 게재하였는데, 후에 다시 후한민과 후이성(胡毅生)이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1906년 요코하마(横浜)의 “국민구락부(國民俱樂部)”에서 출간하였다(책 표지와 본문 서두에는 출판사와 역자가 공민구락부(公民俱樂部)로 표기되어 있으나 뒤의 서지사항 중 발행자는 국민구락부로 표기되어 있다).

46) 孫逸仙先生 演說, 公民俱樂部 譯述, 《支那問題眞解》, 國民俱樂部出版, 1906 참고.

이다.

이에 비해 장타이엔은 쑨원과 같이 주로 중국의 혁명을 선전하면서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방법에 관해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20세기 초 장타이엔의 사상을 평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3가지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화를 위한 사상적, 이론적 기초, 둘째 민족주의와 평화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먼저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식 및 실천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불교의 법상·유식학과 도교, 그리고 칸트, 쇼펜하우어의 철학 등을 기본적인 사유의 자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식론에서 출발하여 존재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사상의 논리는 궁극적으로 존재의 무로서 주체라는 것조차 무화시켜 버리지만, 이것은 타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자립할 수 있는 강한 주체를 수립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였다.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혁명의 도덕을 논하는 것에 대해 불교가 혁명에 무익하다고 비판하는 태정(鐵錚)에 답하면서, 장타이엔은 “중화를 광복하는 데 있어 우리의 세력이 적만 못하고, 우승열패의 관념이 이미 깊이 인심을 사로잡고 있어 이해(利害)를 따지지 않고 죽음조차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자가 아니면 결코 분기할 수 없으며, 분기한다고 해도 오래 지속할 수 없다”<sup>47)</sup>고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주체의 윤리는 바로 “스스로 의지하고 타자에 의지하지 않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스스로 의지함을 중시할 경우 “아견(我見)”에 편향될 수 있겠지만, 이른바 아견이란 이기(利己)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고, 자기를 두텁게 존중하는 기풍이 있어 니체가 말하는 초인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분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모든 주체가 스스로 의지하고 타자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미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하다. 그는 인간이 의식하는 세계는 물론이고 모든 관념들은 의식의 미망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47) <答鐵錚>, 《民報》 第14號, 1907. 6.

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러 관념에 구속되어 판단하고 행동하며 인간사회에서 부당한 차별과 갈등을 야기한다. 장타이엔은 19세기 말 이래 서구로부터 수용된 공리, 진화, 국가, 문명 등 이른바 근대 사상관념들을 하나의 미혹이라고 간주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사회진화론과 문명-야만론에 대해 강하게 해체론적 비판을 진행하였다. 사회진화론에 대해서는 단일 기원론, 낙관론과 목적론, 즉 사회는 더 좋은 방향을 향해 혹은 일정한 목적을 향해 진화한다는 관념을 비판하고 선과 악, 쾌락과 고통이 함께 진화한다고 비판하였다.<sup>48)</sup> 그리고 문명론에 대해서도 특정 시각에서 본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즉 문명과 야만은 본질에서는 동일하고 형식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령신앙과 기독교인을 각각 야만적 종교와 문명적 종교로 우열을 나누는데, 두 종교를 보면 전자는 소의 뿔(존재함)이 말할 수 있다고 하고, 후자는 말의 뿔(존재하지 않음)이 말한다고 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으며 단지 종교적, 인종적 차별과 편견에 기인할 뿐이라는 것이다.<sup>49)</sup> 이러한 주장은 당시 대부분의 사상가들 즉 강유웨이, 쑨원 등이 그 주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근대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는 뚜렷이 대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관념 및 실체를 부정하는 유식의 논리가 불교식의 종교적 평화를 이루는데 적합할 수 있지만, 장타이엔은 평화를 이루는 근거로서 “공(空)”이 아닌 “평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 공이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체를 확립하는 사상적 기초라면, 그러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유정(有情)세계, 즉 인간세계를 새롭게 수립할 때 그 원리는 바로 “평등”이었다. 물론

48) 장타이엔은 <구분진화론(俱分進化論)>에서는 동일한 진화라도 그 기능은 동시에 서로 다른 작용을 한다고 비판하였지만, <사혹론(四惑論)>에서는 더 나아가 진화관념 자체가 미혹이라고 부정한다. 《章太炎全集》 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389-394쪽, 449쪽.

49) <辨姓>(下), 《國故論衡》, 上海古籍出版社, 2003, 143쪽. 또 마량(馬良)이 인간은 홀로 있는 것보다 무리를 짓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가족에서 부락으로 다시 국가로 무리를 확대해 나간다고 보고, 야만인은 국가를 구성할 수 없고 오직 문명인만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가족과 국가는 단지 규모의 대소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성격은 차이가 없다. 가족단계가 야만적이라면 국가단계는 더 큰 야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駁神我憲政論>, 《章太炎全集》 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312-313쪽.

이때 평등은 단순히 형식적인 평등이나 동일화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평등이다. 장타이엔이 장자의 “제물(齊物)”을 통해 설파하고자 한 평등의 세계는 “단지 유정을 동등시하거나 우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이름, 심지어 마음을 떠나 상(相)을 대하는 것, 즉 개념적 차별에서 벗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sup>50)</sup>

그럼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어떻게 인간의 세계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특히 현실 부정적 인식론이 어떻게 적극적인 현실 참여로 전환될 수 있을까? 장타이엔은 자신의 유식학적 세계인식으로부터 현실문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지혜는 끝이 없어도 매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미망일지언정 현상적인 인간세계를 도외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취락, 인류, 중생과 세계가 모두 한낱 무(無)임을 깨닫기 전까지 인간은 부득불 “수순유변(隨順有邊)”, 즉 유한세계에서 중생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sup>51)</sup>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인간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끊임없이 충돌과 살상을 낳고 있는 종족의 갈등이며, 이로 인해 민족주의와 국가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일단 유한세계의 문제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선 주목되는 것은 국가이며, 자연 민족주의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sup>52)</sup>

인류의 수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장타이엔이 민족과 국가문제를 당시 인류의 고통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것은, 중국의 문제든 인류의 문제든 그 근본이 국제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는 강유웨이(姜瑜偉)가 국가의 경계가 나뉘어 발생하는 충돌과 전쟁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본 것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강유웨이는 국가간 일반적 전쟁에 주목한 반면, 장타이엔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른바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화에 주목했다.<sup>53)</sup>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평화란 바로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50) <齊物論釋>, 《章太炎全集》 六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4-6쪽.

51) <五無論>, 《章太炎全集》 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443쪽.

52) <五無論>, 《章太炎全集》 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430쪽.

53) 레베카(Rebecca E. Karl)는 20세기 초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발흥한 것은 단순히 서구의

민족간의 평등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혁명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만주족 청 왕조였지만, 그의 정론의 대부분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먼저 그는 세계의 갈등을 인종 간의 갈등 즉 제국주의 백인과 피억압의 비백 인간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라고 보았다. 그리고 제국주의 지배의 논리인 문명론에 대해 단순히 '관념적 허상'의 차원을 넘어 유럽의 팽창을 합리화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침략 활동을 더욱 조장하는 위선이라고 비판하였다.

대저 제물(齊物)의 효용은 안으로는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로써 모든 현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게 하고, 밖으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세상물정은 가지런하지 않고, 문(文)과 야(野)의 서로 다른 풍속 또한 각각 그 이로움을 따를 뿐 다른 것을 좇아 따르는 바가 없다...검병을 마음에 둔 자들은 밖으로 잠식이라는 말을 꺼리고 고상한 이야기로 본래 의도를 숨긴다. 저 야만인을 문화에 참여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문명 문명과 야만이 구분된다는 견해로서 걸왕과 도척의 효시가 된다.<sup>54)</sup>

이러한 위선성은 유럽이 내세우는 자유와 평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프랑스가 자국과 월남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보여주듯이, 자유와 평등은 유럽인

---

관념을 수용한 것이라기보다, 19세기 후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병합되거나 식민지화되는 것을 보고, 이를 중국의 운명의 관점에서 공감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타민족에 의해 위기에 처하면서 자기 보존을 위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가운데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민족주의는 민족을 국가에 통합하는 국가적 민족주의도 있지만, 국가의 경계를 넘어 타민족과 연대하고 공감하는 민족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레베카의 분류에 따르면 장타이엔의 민족주의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Rebecca E. Karl, *Staging the World: Chinese Nationalism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2 참고.

54) <齊物論釋>, 《章太炎全集》 六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100쪽. 장타이엔은 언어에 의한 의미 혼란이나 왜곡이 이루어지는 담론에 대해 주의하여 당시 제국주의 담론의 위선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는 다수의 즐거움(衆樂)이라는 구실로 타인의 것을 빼앗는 제국주의에 대해, 이는 박애라는 의미에 가까운 겸사(兼士)라는 말로써 침략하고 빼앗는 검병주의를 꾸미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駁神我憲政論>, 《章太炎全集》 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316쪽.

에게만 적용되고, 비유럽인에게는 오히려 가장 부자유, 불평등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55)</sup>

더 나아가 그는 문명인을 자부하는 백인 유럽이야말로 더 ‘야만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유럽의 윤리는 屠伯(한나라 태수로 잔혹한 살생을 일삼음)이자 야인(野人)의 윤리이라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것은 빼앗고 죽이는 것으로, “오늘날 소위 문명국가를 보면 다른 대륙, 다른 인종을 도륙하는 것이 桀(桀)·주(紂)보다도 더 심하다.”<sup>56)</sup>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륙조차도 학술로써 분식(粉飾)하고 미화시키고 있다. 즉 그는 백인 강종(強種)이 문명의 이름 하에 경제적인 수단과 살생의 수단으로 타국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문명이란 도의가 아니라 허영을 기준삼고 있으며 이를 인심을 억누르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sup>57)</sup>

이러한 제국주의시기에 정의와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장타이엔에 따르면 국제법이란 조리 없이 아쉬운 대로 임시변통하는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의 전쟁이나 억압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억압민족이 지배민족에 대해 저항(복수)을 하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다.<sup>58)</sup> 따라서 흑인과 아메리카인디언, 그리고 세계의 일반 국민(生民)을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강종인 백인과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독일의 황제를 우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중국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인도 등 피억압 민족과 연합해서 추진해야 한다.<sup>59)</sup> 그는 또 힘이 없거나 작은 종족이 타 종족의 억압에 맞서는 대항 이념으로서 제기된 민족주의에 대해, 혁명당이 주창하는 민족주의는 단지 한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참된 마음(赤心)을 인도, 버마, 월

55) <五無論>, 《章太炎全集》 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433쪽.

56) 위의 글, 438쪽.

57) <復仇是非論>, 《章太炎全集》 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273-274쪽.

58) 위의 글 270쪽.

59) 백인과 서구 제국주의를 적으로 삼으면서 만주족 칭 왕조 전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그는 백인에 맞서는 것이 우선이지만 중국의 역량이 부족하여 당장 실행할 수 없고, 비록 그들에 비해 자치만 한족 중국인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또 다른 강종(強種)인 만주족을 몰아내는 것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위의 글, 274-275쪽.

남, 말레이시아 등 피억압민족에까지 확장하여 그들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였다.<sup>60)</sup>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장타이옌은 일찍이 황인종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였다. 비록 청일전쟁으로 일본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악화되긴 했지만, 이를 이유로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은 중국을 더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보았다.<sup>61)</sup> 그리고 1905년 영국의 인도 총독이 벵갈 주를 동과 서로 분리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인도 국민회의 급진파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이 활기를 띠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서구 열강에 견줄 수 있는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과 인도 등의 연대를 중시하였다. 하지만 1907년 일본에서 개최된, 17세기 무굴제국 영토를 점령하고 인도 마라타 제국을 건국한 시바지를 기념하는 대회에서 일본의 저명한 정객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칭송하고 인도의 저항을 비판한 이후부터는 황인종 일본 또한 백인을 끌어들이 동류를 모욕하는 서구와 같은 제국주의라고 비판하였다.<sup>62)</sup> 그리고 일본에 의지하는 대신 장타이옌은 아시아 피억압 민족의 연대와 중국과 인도의 동맹의 방식을 통해 각 피압박민족의 독립과 “아시아의 자주”를 성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시아화친회”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이미 주권을 상실한 아시아 민족이 독립하는 것”을 중지로 삼고 “아시아 각국에 혁명이 발발하면 서로 협력”하는 것을 회원들의 의무로 삼았다면, 중국과 인도의 동맹은 조선, 베트남, 버마, 류큐 등이 이미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독립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10년 내에 자주독립의 희망이 있다고 보여지는 인도가 국가적으로 협력하여 서구의 압박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sup>63)</sup>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 각국이 독립한 후에는 민족의 넘어 서로 소원한 것을 풀고, 시비 및 이해의 판단이 없이 사물

60) 위의 글, 273쪽; <五無論>, 《章太炎全集》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430쪽.

61) <論亞洲宜自爲唇齒>, 湯志鈞 編, 《章太炎政論選集》上冊, 中華書局, 1977, 5-6쪽.

62) <印度人之觀日本>, 《章太炎全集》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365쪽

63) <支那印度聯合之法>, 《章太炎全集》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367-368쪽; <亞洲和親會規章>, 朱維鈞, 姜義華注, 《章太炎選集》, 上海人民出版社, 1981, 429-432쪽.

과 함께하는 현동(玄同)과 제물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sup>64)</sup>이 곧 그가 추구하는 평화의 이상이었다.

## 5. 결론

이와 같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중국의 평화관념 혹은 평화사상은 모두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세계체제 혹은 국제관계에 주목하고, 중국의 국가 및 민족 위기를 극복하는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현실주의 입장은 만국공법이나 균세의 법과 같은 국가간 관계를 규범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규율함으로써 중국의 위기 극복은 물론 세계 혹은 지역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은 형식적인 주권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한 주권 능력, 특히 서구적 문명기준을 전제로 삼고 있었는데, 청일전쟁으로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주변적 위치로 밀려나 균세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제규범을 통한 국가와 지역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평화란 부강을 통해 어느 강국에 뒤지지 않는 주권능력을 확보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주변화 되고 분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평화질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내부의 변화(변법)와 자강을 통해 균세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능력을 확보하고, 세계의 제국, 즉 열강 및 그들의 연방과 경쟁하여 중국에는 세계의 제국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는 서구의 열강이 강국이 된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서구와 제국주의적인 경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캉유웨이의 대동세계에서는 세계정부 즉 공정부로 나아가는 경로에서 약소국이 설 위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캉유웨이의 대동세계가 함축하

64) <印度人之論國粹>, 《章太炎全集》 四卷, 上海人民出版社, 1986, 367쪽.

고 있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수많은 약소민족의 병합이라는 온갖 비극과 위선을 감추고 있는 세계제국 혹은 근대식 천하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칸유웨이를 잠재적인 제국주의론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법(공법), 공리, 진보, 문명 등 관념과 제국주의 시기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날줄과 씨줄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근대 담론과 상상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또 다른 평화구상은 세계 평화의 교란의 원인이 제국주의에 있다고 보고, 평화란 그러한 부조리를 없애고 모든 민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하여 정의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족의 독립이 단순히 국제정치에서 정치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족의 독립은 민족 간의 상호 교류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각자 고유의 관습과 가치를 누리고 상호 존중하는 국제질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민족이라는 경계와 구분은 의미가 없다. 장타이엔의 제물론적 국제질서는 바로 이러한 평화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체제를 위해 장타이엔은 피억압 민족의 연대 혹은 반제국주의자의 연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종론, 혹은 지역적 문명 차이에 따른 피아의 구분에 의거하여 연대와 저항의 대상을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은 실은 장타이엔이 그렇게 비판했던 서구의 편향적인 근대적 관념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그는 인종 간의 우열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인종주의 혹은 인종론과는 다르다. 하지만 당시 세계의 주요 경쟁과 갈등을 종족 간의 갈등(인종은 종족의 확대하고 할 수 있다)이라고 봄으로써, 일본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서도 보여주듯이 당시 보다 복잡한 세계의 문제를 단순화하는 면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타이엔의 제물론적 평등세계는 균세론에 의거한 현상유지적 평화관념이나 칸유웨이의 대동세계가 지닌 문제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시대적 한계에 의한 부득이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과 가치지향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로서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 &lt; 參考文獻 &gt;

- 강동국,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화: Balance of Power의 개념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김영진, 《불교와 무의 근대: 장타이엔의 불교와 중국근대혁명》, 그린비, 2012.
- 박배형, <영원한 평화 그리고 제국주의>, 《혜겔연구》 39호, 2016.
- 양준희·이종삼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한울, 2009.
- 이동기, <평화사관 무엇인가>, 《역사비평》 106(2014년 봄호), 2014.
- 이은주, <19세기 말 한국 외교정책 모델리티로서의 '균세(均勢)'와 인아거일(引俄拒日) 균세전략의 국제정치학적 분석>,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20(2), 2017. 12.
- 차태근, <20세기 전환기 중국 평화담론 연구—“세계평화회의”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第61輯, 2018.
- 칼 폴라니 지음, 박현수 옮김,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민음사, 1998.
- Alfred Vagts and Detlev F. Vagts, “The Balance of Power in International Law: A History of an Idea,”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3, No.4 (Oct, 1979).
- Little, Richard, *The Balance of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Schroeder, Paul, “International Politics: Peace and War 1815-1914”, in Blanning, T, *The Nineteenth Century: Europe 1789-1914*,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Sobek, David, Chapter 3 “Balance of Power”, in *The Causes of War*, Cambridge, 2009.
-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Little, Brown., 1857.
- Rebecca E. Karl, *Staging the World: Chinese Nationalism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2.
- <論瓜分中國非泰西各國之本心>, 《申報》, 1898年9月16日.
- 康有爲, 康有爲大同論三種》, 三聯書店, 1998.
- 康有爲 지음, 李聖愛 옮김, 《大同書》, 민음사, 1991.
- 康有爲 撰, 《康有爲全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 郭嵩燾, 《郭嵩燾日記》 第三卷,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2.
- 羅森 等, 《早期日本遊記五種》,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3.
- 梁啓超, <中國積弱溯源論>, 《清議報》 第77-84冊, 1901年4月29日-7月6日.
- 黎庶昌, 《西洋雜誌》,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1.
- 馬建忠, <巴黎復友人書>, 《適可齋記言》 卷二.
- 浮田和民, <帝國主義理想>, 《國民教育論》, 民友社, 1903.
- 薛福成, 《出使英法義比四國日記》, 長沙: 嶽麓書社, 1985.
- 孫逸仙先生 演說, 公民俱樂部 譯述, 《支那問題真解》, 國民俱樂部出版, 1906.
- 王韜, <送黎侍郎回越南前序>, 《弢園文錄外編》, 清光緒9年(1883).
- 王彥威·王亮輯, 《清季外交史料》 卷九,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7.
- 章炳麟, <爲民報封禁事移讓日本內務大臣平田東助書>, 湯志鈞編, 《章太炎政論選集》 上冊, 中華書局, 1977.
- 章太炎, 《國故論衡》, 上海古籍出版社, 2003.
- 章太炎, 《章太炎全集》, 上海人民出版社, 1986.
- 鄭觀應, 《盛世危言》, 中州古籍出版社, 1998.
- 丁韙良, <中國古世公法略論>(1884), 王健編, 《西法東漸: 外國人和中國法的近代變革》,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1.
- 朱維錚, 姜義華 注, 《章太炎選集》, 上海人民出版社, 1981.
- 竹內弘行, 《康有爲と近代大同思想の研究》, 汲古書院, 2008.
- 陳虬, <擬援公法許高麗爲局外之國議>, 《治平通議》 卷四, 光緒19年甌雅堂刻.
- 崔國因, 《出使美日秘日記》, 合肥: 黃山書社, 1988.
- 湯志鈞 編, 《康有爲政論集》(上), 中華書局, 1981.
- 漢民, <民報之六大主義>, 《民報》 第三號, 1906.
- 亨利·惠頓 著, 丁韙良 譯, 《萬國公法》, 同治三年, 京都崇實官.

## &lt; Abstract &gt;

## Peace Discourse in the Imperialism Era

Cha, Taegeun

This thesis analyzes the logic and characteristics of peace discourse of the peace discourse in China during the so-called imperial period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At that time, the representative peace theory could be divided into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the norms of the universal law and the law of balance of power, The Daedong world with the international political balance of power as the driving force, and the solidarity theory of the minority for the independence and coexistence of each nation. After Martin translated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politics, balance of power from international law to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norms, Chinese diplomats and intellectuals hoped for peace in the region or world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law and law of balance of power. However, this hope disappeared with the expectation of universal peace among the Chinese when the theory of division of China was brought up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theory of balance of power became an excuse for the invasion and division of other countries. However, as the division of China in the early 20th century was overthrown by the need for a balance of power by the Western powers, the balance of power was still a realistic condition for peace.

Meanwhile, in the early 20th century, two representative thinkers of China, Kang Yu Wei and Zhang Tai Yen, each envisioned world or East Asian peace, including China. Kang Yu Wei's Daedong World and Zhang Tai Yen's Qiwu(equality) world are examples. Howeve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Kang Yu Wei's Greater East World, or world state, is based on the logic of the power balance of the great powers, especially the logic of the hegemony of

imperialism. On the other hand, Zhang Taiyan criticized imperialism from the point of view of equal nationalism and insisted on the solidarity of the minority. In sum, most of the theory of peace in China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mplied the logic of imperialism. As compared With them, Zhang Taiyan's theory of peace can be said to be a meaningful concept that can be referred to today.

Key words: Imperialism, Datong, Qiwu, Nationalism, Balance of Power, Kang Youwei, Zhang Taiyan, Peace discours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7. 31	2020. 08. 11 -08. 28	2020. 08. 24	2020. 08. 28	2020. 09. 30

